



제직 임직예배

한 승의 광로



지난 2월 3일 본 교회에 서는 2008년도 제직 및 구역장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장로님과 13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재임직 받았으며, 24명의 서리 집사님들이 새로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14명의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구역원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서약하셨습니다.

2월호차례

제직 임직예배

권두언

공동의회 및 당회 소식

성탄 축하 예배

송구영신 예배

새해의 기도-이선영 장로

유아 세례와 간증문

제직의 수요일 예배

사순절 묵상집 발간

교회기구 및 임원진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중고등부 소식

청년 1부 소식

KCB 포토 앨범 DVD출간

중등 여행: 팔레스타인

새교우 환영반 소식

교우 동경 및 광고

KCB 나누고 싶은 모습들

재임 장로: 김세철, 장양술, 한승희

재임 안수집사: 고경아, 김영범, 김영숙, 김영순, 김한나, 김현구, 김효경, 박관희, 박미숙, 박신영, 오승현, 지훈, 한문수

서리 집사: 강지민, 김동원, 김민정, 김은석, 김용한, 김지홍, 박성준, 박애리,

박은영, 박지원, 배성주, 서원석, 손영권, 송현정, 안은신, 이상진, 이성숙,

이지현, 이혜원, 장보경, 정광근, 황지영, 황호범

구역장: 고진수, 김경애, 김동숙, 김정선, 김준배, 방경남, 박신영, 박은정,

유승오, 이숙재, 이원걸, 이주용, 이창호, 최정열



수족관(aquarium)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적인 관점과 동양적인 관점입니다. 서양인들은 물고기를 보면서 ‘어느 것이 크다’를 본다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물고기를 보면서 색깔을 봅니다. 그리고 전체를 봅니다. 서양인들은 하나를 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을 보지만 동양인들은 전체를 보고 아울러 색깔의 조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덧 온세계는 서양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Super Bowl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 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누가 크냐’를 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서양화가 되고 있는 것을 느껴

볼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가 강하냐를 생각하며 지내 왔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누가 강하냐’의 색안경을 끼고 지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노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사순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사순절은 누가 약하냐를 보는 절기일줄 압니다. 약한 자를 볼줄 알 때 우리는 전체를 보게 될줄 압니다. 하나하나에 담긴 아름다운 색깔을 보게 될줄 압니다. 이번 사순절기간 함께 가장 약한자를 찾아가 봅시다. 인간 역사에 오신 가장 약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1월 공동의회및 당회소식

김문소 강로

1. 2007년 연례보고서를 채택 통과시켰습니다.
2. 2008년 재정보고서 총 \$ 925,000.00을 인준하였습니다.
3. 담임목사와 행정 부목사의 사례비를 인준했습니다.
4. 2007년 잔액 \$ 34,101.45를 건축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5. 노회가 요청한 “유년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Child and Youth Safety Policy)” 과 “성위법 행위 관련 지침(Sexual Misconduct Policy)”의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6. 다음과 같이 신임 제직원이 임명되었습니다.
 - 신임 서리집사 (24명): 강지민, 김동원, 김민정, 김은석, 김용환, 김지홍, 박성준, 박애리, 박은정, 박지원, 배성주, 서원석, 손영권, 송현정, 안은신, 이상진, 이성숙, 이지현, 이해원, 장보경, 장승혁, 정광근, 황지영, 황호범
 - 신임 권사 (1명): 이숙재
 - 신임 안수집사: 김중희, 김화옥, 양경삼, 이유택, 최현구

- 신임 장로 (2명): 안태준, 홍동욱
- 7. 새로 섬기실 분야들
 - 2008년 공천위원 (7명): 서은영, 손영권, 김태호, 조순래 (공동의회) 한문수 (집사회), 장양술 (부), 조준호 (장) (당회)
 - 이사장: 김성빈
 - 홍보위원장: 홍동욱 (김정선)
 - 감사: 이선영
 - 인사위원: 홍경자 (당연직: 김성빈, 김문소(장))



성탄축하예배

“기쁘다 구주오셨네...”

성탄예배는 항상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올해도 해바라기 유치, 유년부와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의 활기차고 기쁨에 넘치는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찬양대의 특별 찬양으로 John Rutter의 “영광,” Franz Abt의 “베들레헴의 빛”은 10종의 타악기와 관악기가 함께한 웅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촛불 점화시에는 고 한관수 성도, 고 김필진 성도의 가족들이 참여하였고 전기불을 소등한 촛불예배때는 세상의 암흑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2007년 정해년을 보내고 2008 무자년을 맞이하며 2007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목사 이영길 목사님의 송년메세지인 “욥의 축복” 메세지는 서로 ‘축하합니다’ 인사를 나누며 시작되었고, 죄의 값은 3-4대(100년) 물려지지만, 의의 값은 천대(3만년)를 내려간다는 의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욥에게 주셨던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축복은 배(multiple)가 되게 하신다며, 한해의 마지막 순간에, 지난 한해의 잘못을 뒤돌아 보며 앞으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착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축복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하이라이트인 권사님들의 우아한 한복 차림의 “사랑의 송가” 특송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고, 백린 장로님께서서는 “무자년”에 대한 소개를 의미있게 또 재치있게 해주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신년 메세지는 양수진 어린이의 성탄카드를 소개 시켜주시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임영수 목사님의 새 공동체 “모.새.골.”을 소개 하시며 우리도 “모두 새로와지는 골짜기”로 향해가는 신년이 되길 바라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자년 띠풀이> “풍요와 희망, 기회”

올해는 쥐띠해입니다.

쥐의 기운은 수기운인데, 타고난 수기운에 다시 한번 더 수기운이 겹쳐져 있으니 올해는 쥐띠분들에게 상당히 강한 기운의 해가 될 것입니다.

‘쥐의 해’는 풍요와 기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만사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쥐의 해’라고

page 4 로 계속

시 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새 로움을 기다리며 새 노래로, 열줄 비파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올해 새벽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궁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희들 모였습니다. 중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며 광야같은 저희들 마음에 화초를 피우기를 꿈꾸며 새 꿈을 안고 저희들 모였사오니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때에는 기쁨을 안고 소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예 배로 삼아주시옵소서.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 꿈을 소망해 온 지난 날의 삶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졌던 기억이 더 많은 우리들을 안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 일으켜 세우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코, 한사람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오랜 습관의 굴레에서 좌절하여 오는 사람, 자신의 죄성의 어두움을 안고 오는 사람, 메마른 땅에 단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오는 사람, 슬픔과 고통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셀 수 없는 갖가지 간절한 마음을 안고, 주의 말씀을 바람으로 여기에 모였사오니 한사람 한사람 안고 온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올 때는 눈물을 안고 왔으나 나갈

새 하늘, 새 땅을 간절히 바라며 온 우주가 주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page 3에서 계속

풍요와 기회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으면 풍요와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에는 타지 않는다”는 속신(俗信)은 쥐가 갖는 예지력을 웅변합니다.

쥐 라고 하면 더러움이나 간사함의 상징처럼 통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쥐에게서 긍정적인 것을 봤습니다. 쥐띠 해를 풍요와 희망, 기회가 드는 때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쥐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食福)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쥐는 어려운 여건을 딛고서 살아남는 근면한 동물입니다. 재물이나 다산,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우리네 민간전승에서 두루 나타납니다. .

‘쥐가 모자를 씹으면 재물을 얻게 된다’거나 ‘쥐가 방 안에서 쏘다니면 귀한 손님이 온다’ 했으며, ‘쥐가 집안에서 흙을 파서 쌓으면 부자가 된다’고도 하고 ‘쥐띠가 밤에 나면 잘 산다’고 했는데, 부디 쥐띠 새해에는 이런 쥐들만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쥐가 일상생활에 끼치는 해는 크지만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해서 신령스런 동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쥐땀이 배에서 내리면 난파한다”거나 “쥐가 없는 배

ECC 건축 예산

Construction Cost (Kang Suk Const. Co., Inc)	\$2,706,000
Contingency (예비비 @10%)	\$ 270,600
BHA & Engineering Consultants (@12%)	\$ 324,700
Const. Manager, Legal Fees & Misc. Expenses (@5%)	\$ 135,300
Total Budget	\$3,436,600

건축계획

- Obtain ECC Construction Permit from the Town of Brookline (via Kang Suk)
- Sign a Revised Contract with BHA & with Construction Manager (R. Marks, Daedalus)
- Remove & Store the Playground Equipment
- Excavate Underground Oil Tank & Convert to Natural Gas Heating (Site Preparation)
- Start ECC construction on April 14, 2008
- Complete ECC construction in April 2009

유아세례

지난 12월 23일 6명의 유아들의 세례식이 성탄 주일에 거행되었습니다.

유아세례자-김종민(김준배/주민정),박태현(박철완/김경희),유부영(유민재/김래아),배예은,배하은,배주은(배상결/서은영)

유아세례를 위한 부모 신앙 간증문

(또 다시 받은 주님의 선물에 감사를 드리며.....)

김준배/주민정 (김종민)

우리 가족 모두가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말한 한마디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이라든가 한 뜻이
주께서 주신 선물 ‘종민이!’

연스럽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을 만들 때도 우리 부부가 만들어 온 것을 거울 삼기를 바라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아이들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부부에게 아이의 유아세례를 세 번씩이나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고 키우지만 역시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말아서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느끼고 깨닫습니다.

저와 시어머님이 항상 함께 하는 성경 구절을 적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 것도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욕심 많은 부모의 눈으로 키워 온 것을 반성하고 회개 합니다. 부모의 기준과 욕심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밝게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먼저 신앙적으로 아이들 보기에 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아이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에 자

끝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낯선 미국 땅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항상 기도와 격려로 도움을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친정 어머니, 언니, 동생과 같은 구역 식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녀로...)

박철완/김경희(박태현)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신 첫번째 보배 태건이에 이어 또 하나의 귀한 보배 우리 태현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 날에 맞추어 세상에 나오게 해 주신 일들, 이 모든 것이 기적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태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니, 우리 가족 모두 다시 한번 행복을 느낍니다. 저희 가족을 이곳 보스톤으로 이끄셔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하심은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일임을 압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곳 보스톤에 오게 하시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훌륭한 의사에게 인도하시고, 산후 조리사가 오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태현이가 더 일찍 나오지 않고, 할머니가 오

주님, 이 아이가 자라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하시며, 질병 없이 잘 자라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주변 이웃들과 저 멀리 온 세상에 나누어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끝에 주신 우리 태현이 세례를 받게 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재의 수요일 예배

지난 2월 6일 수난주간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 예배를 본 예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릇에 담긴 재를 각 교인의 이마에 발라주시며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지이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예식을 대신한 예배는 앞으로 사순절 기간동안 우리들이 경건히 지내야 함을 다짐하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2008 발간 재의 수요일 예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순절 묵상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사순절(재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기간동안 이 묵상집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 낱자를 넣었사오니, 매일 매일 하나의 글을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시며 받으신 은혜를 마지막 페이지 ‘나의 묵상과 기도’란

에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더불어 내년도 묵상집에 실어 함께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글은 교회 홈페이지 www.kcboston.org ‘기도와 묵상’ 코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8일(금요일) 묵상글 ‘고난을 자처하는 삶’은 우리 교회 김상덕 교우님의 글입니다. 글쓴이의 이름이 누락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쉐마기도회

지난 1월 26일 토요일 교회에서는 쉐마의 밤 대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이번 기도회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올해 교회행사 일정에 따라 각 기관, 부서, 관련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월별로 행해질 교회 행사의 주제 내지는 참석자들을 위해 두손을 모은 이번 기도

회는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 혹은 상관이 없다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 만으로도 새롭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와 관계있는 것에 국한하여 드렸던 기도에서 벗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에...사뭇 달랐던 이 기도회는 7월에 또 있습니다.

교회기구 (2008년)

각 기관 새 임원진

*당회 및 위원회

당 회	위원회	당회장	이영길 목사
		당회서기	김문소 장로
	1부 교육위원회	1부 위원장	박영철 장로
	2부 교육위원회	2부 위원장	김명철 장로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최연일 장로
	국내선교위원회	담당부서	집사회
	예배예술위원회	위원장	홍경자 장로
	홍보위원회	위원장	홍동욱 피택장로
	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장로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세철 장로
	교인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사회정의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성빈 장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김문소 장로
		위원	김성빈 장로
재정감사	위원장	이선영 장로	
건축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장로	
공천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장로	
	부위원장	장양술 장로	

· **에스더 여성교회**

고문: 태영미, 김동숙, 김영순, 이성혜 사모
 회장: 배한원
 부회장: 노윤경
 서기: 임보라
 회계: 이은주
 문화부장: 박은영
 선교부장: 전개연
 친선부장: 박애리, 차장: 박지원
 봉사부장: 정명숙, 임원: 김송이, 김하나, 김희현,
 박미란, 장숙량, 홍경화
 연합부: 강혜정, 문유경, 변은지, 서민정, 서영주,
 서은영, 이남이, 이미정, 전현임, 주민정, 진정원,
 한정인

· **마리아 여성교회**

고문: 이성혜 사모
 회장: 배성희
 회계: 김한나
 서기: 서명숙
 봉사부장: 김정림

· **2008년 집사회 임원명단**

회장: 한문수
 총무: 최현구
 서기: 이태호
 회계: 김준구
 건물관리 및 경비안전부: 이정일/이재혁
 경조 및 구제부: 김현구
 국내선교부: 이봉욱/김준배
 도서부: 김우진/이진희
 문화부: 박은정/황동준
 봉사부: 정일진/백승한
 생활상담부: 김현구/황호범
 음악 및 체육부: 박진욱/김태경/김은정
 의료부: 손영권
 전산부: 하대준/김상기
 친교부: 김동숙/박애리
 홍보부: 박성준/김희정

고문장로: 조준호 장로님
 전임회장 고문단: 이경환, 이정규, 안태준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1.마리아 여선교회에서는 신년을 맞이하며 신년 첫 예배때 1부 다과시간에 모든 교인들에게 떡만두국을 대접하였습니다. "최씨네 만두네"에서 만두를 교회회를 위해 기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월 첫 금요일 7일에는 연례적인 행사중 하나인 "세계기도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가이아나 나라의 여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본교회 예배당에서 오후 7시30분에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여선교회원들의 참여 바랍니다.

중고등부 소식 Youth Group Lock-in (일일수련회)

김성연 집사

지난 1월 20일 Ransom Youth Group에서는 겨울 일일수련회 (Lock-in)를 가졌습니다. 약 20명의 학생들과 8여명의 선생님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서로 친목을 다지고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서로 다른 가운데서도 주님 아래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후 피자과 더불어 영화관람으로 순서를 시작하였고, 자기 소개와 여러가지 게임으로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PTA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저녁식사를 나누고, 학생들끼리 준비한 여러가지 게임과 놀이로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주님을 접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이어 몇몇은 정규 취침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온 많은 학생들이 Youth Group에 더욱 잘 적응



해바라기 소식

해바라기 주일학교를 섬기실 다섯분의 선생님을 찾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듣고, 고사리같은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랑을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실 청년, 어머니, 아버지를 찾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어린이들을 섬길 귀한 선생님을 모십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첫 걸음을 주일학교에서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먼저 만난 예수님, 조금 먼저 받은 예수님의 사

청년 1부 소식

이요한 전도사 소개

청년1부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수고했던 흥동철 집사 후임으로, 이번 2월부터 이요한 전도사를 담당 교역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요한 전도사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예장 통합)에서 5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구약학 신학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한 2006년 8월부터 출석하였으며, 부부청년부와 북동구역 식구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는 인턴쉽 전도사로서 3개월간 주일 성인성경공부반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요한 전도사 가정은 김희진 사모와 20개월 된 이윤찬,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윤찬’이라는 이름

은 믿음 ‘윤,’ 빛날 ‘찬’이라고 합니다. 아기의 이름 뜻대로 세상에 믿음을 밝히는 이요한 전도사 가정과 청년1부가 될 것을 기대하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라는 청년1부 표어대로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청년1부와 이요한 전도사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요한 전도사의 바뀐 주소와 연락처는 140 Essex Street APT 112, South Hamilton, MA 01982와 617.388.7823 입니다.



2008 보스톤 한인교회 청년 1부 겨울 수련회



사민호 교우

2월 1일 금요일 저녁 부터 2월 3일 주일 오후까지 Sharon 수양관에서 이뤄진 보스톤 한인교회 청년 1부 겨울 수련회에는, California Pasadena 지역, 제자인 교회에서 섬기시고 계신 송원준 강사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경건의 시간 Q.T를 25년 동안에 하시면서 배우신 노하우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청년 1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은 교훈을 배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2박 3일동안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수련회에 만 반짝하고 식는 열정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 생활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Q.T를 작게는 개인적으로 크게는 한 그룹으로 행해 나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축복과 감사의 해 2007 년에 있었던 모든 교회 행사 사진들을 모아 하나의 DVD 로 출간 하였습니다. 전부 400장 이상의 사진들이 행사별로 타이틀과 함께 슬라이드 쇼로 배경음악과 함께 약 20분간 돌아 갑니다. DVD-Video 포맷으로, 보통 DVD player, Windows 또는 Mac 컴퓨터 어디에서나 돌아가게 제작하였습니다. 이 DVD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의 귀한 교회 역사 자료로서 보존하게 될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사진모음이지만, 특별히 윤경문 목사님이 편집 총괄, 김상기 집사님이 손수 찍은 많은 사진과 함께 실제 DVD를 제작, 김용한 집사님이 DVD 패키지 디자인, 이미 홍보부 주관으로 전문가에 의뢰, 2월 중순 300부가 도착 예정으로, 앞으로 교회내외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중동 여행: 팔레스타인

임연교우

저는 2007년 11월 3주 동안 중동 지방에 3주 배낭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4 개국을 바빠 돌아다닌 여행이었습니다. 배낭 여행을 많이 다녀 본 저로서도 이번 여행은 특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한 여행이었습니다.

배낭 여행할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배낭 여행을 할 때는 단체 여행자가 보고 느낄 수 없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저이지만 미국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도 시리아와 레바논에서도 저는 아무런 불이익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이 친절 한 사람들이 아랍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가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은 미국시민인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저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나도 시리아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4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며 취조를 한다면, 과연 팔레스타인 인들은 과연 매일 같이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까?” 하는 질문은 저를 망치에 얻어 맞은 듯한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국경에서 만난 인상 깊은 미국인 두분이 있었는데, 한분은 시카고에 사는 Palestinian American Doctor분이 셤고, 또한분은 Notre Dame의 노교수분이 셤습니다. 의사분은 오래전부터 시간 날때마다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셔서 의료 봉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자기와 동료들을 달가와 하지 않는 것을 느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국경에서 지체를 시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교수 분 (교수이자 신부님이기도 하셨던 분) 은 자신의 제자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다 체포 되어 이스라엘에서 추방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공항이 아니라 요르단 국경을 건너 이스라엘을 오게된 것이 나에게 하나의 축복이라고 얘기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추한 단면과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국경에서 부터 어렵듯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국경에서 받은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은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군요.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 의외로 심란하고 착잡한 이유였습니다.

새교우 환영반 소식

교인위원회의 새교우 환영반은 담임목사님과 함께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가족들을 초대하여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3주 기간동안 서로를 알 수 있는 소개의 시간과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을 배우며 환영의 시간을 가집니다. 1월 새교우 환영반을 마치신 교우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우승/김지영 교우 가정(북서1구역): 의사이시고 이민 오셨으며 고등부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녀로는 주혜, 이삭, 주호가 있습니다.

강민형/김진섭 교우 가정(중앙 4구역): 시카고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현재 MGH에서 녹내장 연구원으로

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녀로는 제인이 있습니다.

박철환/김경희 교우 가정(부부청년부): BU 치대에서 공부하고 계시며 태건, 태현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박상민/이윤화 교우 가정(중앙 4구역): 압연구원으로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에 계시며 자녀로 하은, 하원이 있습니다.

3주 교육 과정이 끝나고 조준호/김한나 장로님택에서 새교우님들을 초대하셔서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사랑으로 환영해주셨습니다. 초대해주신 장로님택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스톤 한인 교회의 한 식구가 되신 새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우동정

1. 소천: 이진화(부친), 김중희(부친)
주민정 (모친), 정기라(모친)
2. 출생: 김도윤/서보영 교우(정현, Jason)
박관용/김기연 교우(예승, Joshua)
이지훈/정은아 교우(은호, Heaven)
조경필/조안나 교우(Nathan)
3. 김상영 교우가 “3rd Bosendorfer USASU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에서 우승 하였습니다. 김상영 교우는 현재 NEC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Master과정을 하고있고 2부 찬양 대원으로, 청년1부 회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1등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광고

1. 2008년도 주정헌금을 위한 헌금봉투가 새로 나왔습니다.
번호를 등록하시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 무자년 2008년도 교회 새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3. 금년도 헌화와 다과로 봉사하실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복도의 게시판에 있는 Sign-up sheet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집사회 전체회의가 23일(토) 6:30pm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식사가 제공되오니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집사님들은 적어도 집사회의 한 부서에 속하셔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유아세례식



• 유아세례식



• 성탄 축하 예배



• 2008 신년예배



• 공동의회



• 청년 1부 겨울 수양회



• 보스톤 한국학교 구정잔치



• 보스톤 한국 학교 구정잔치